

오리산업의 중심지 전라남도 이제는 친환경축산을 먼저 실천한다.

GPS사업추진위원회 나종일



■ 전남대학교 강연 현장



■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오리업계 관련자들



2007년 6월 25, 26, 28일 3일간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에서는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놓여졌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축산 실천 교육에 전라남도의 대표 축종인 한우, 양돈, 흑염소와 더불어 오리가 이들 축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위탁 교육기관인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에서는 한국오리협회에 강사 파견 요청을 하였고 본인이 강사로 참석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우, 양돈, 흑염소,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 교육을 통해 친환경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이에 협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비롯, 모든 직원들이 이번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

3주간의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친환경축산 실천 교육 오리 분야에 참가할 농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나갔다.

협회에서 이번 교육에 담당하게 될 과목은 총 10과목 중 5과목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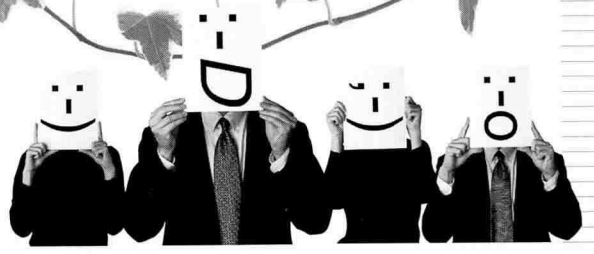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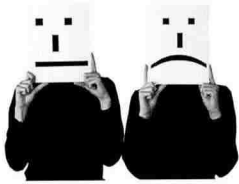
오리반 교육 과목(10과목) :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정책,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및 발전방향, 종오리 사양관리, 육용오리 사양관리, 오리축사의 약취제거, 2007년 오리산업의 동향과 전망, 선도오리농가 우수사례, 오리 질병, AI 표준 행동요령

협회에서 담당할 과목(5과목) :

종오리 사양관리, 육용오리 사양관리, AI 표준 행동요령, 2007년 오리산업의 동향과 전망, 선도오리농가 우수사례

강의 3일전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에서는 이번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명단을 통보해 주면서 원래는 20명이나 전라남도 오리 농가에서 도축산과에 교육 인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여 50명이



나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 주었다. 본인을 비롯한 협회 직원들은 이와 같은 전라남도 오리 농가들의 높은 관심도를 접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드디어 6월 25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 201호실서는 친환경축산 오리 농가 반 교육이 시작되었다.

- **교육목표** : 친환경 오리 실천농가를 육성하여 전라남도 친환경축산을 본격 추진한다.
- **교육내용** : 전라남도 친환경축산 정책,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및 발전 방향, 종오리 사양관리, 육용오리 사양관리, 오리축사의 악취제거, 2007년 오리산업의 동향과 전망, 선도오리농가 우수사례, 오리 질병, AI 표준 행동요령
- **교육장소** : 전남대학교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 201호실
- **교육일시** : 2006년 6월 25일, 26일, 28일(3일간)
- **교육시간** : 10:00~17:00
- **강사**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 국길 (전남대학교 박사), 나종일 (한국오리협회), 민중환(한국

오리협회, 김영식(수의사), 송하진(수의사)

한국오리협회에서는 본인이 6월 25일에 2007년 오리산업의 동향과 전망, 종오리 사양관리를 강의하였고 6월 26일에 육용오리 사양관리, AI 표준 행동요령을 강의하였다.

6월 28일에는 민중환 부회장님께서 선도 오리농가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강의하였다.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전라남도 오리농가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진 것 같다. 또한 교육생들은 한국오리협회에서 진행되는 오리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협회가 오리농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런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우리 오리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지게 되었다. 오리농가가 발전해야 협회에 종사하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오리산업 종사자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